



[뉴스]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02



Economy

코스피	3305.21 (+12.00)	코스닥	1044.96 (-2.37)
금리 (우대금리)	1.465 (+0.003)	환율 (원/달러)	1129.70 (-2.10) (6일)

‘메타버스’ 올라 탄 이통사 316조 선점 공격 드라이브

(2025년 세계시장 규모)

- SKT, 메타버스CO 조직명 변경 이달 중 신규 서비스 론칭 계획
- KT, 전문기업들과 원팀 만들고 어린이 운동회 등 서비스 선보여
- LGU+ ‘XR 얼라이언스’ 의장사 메타버스 시장 글로벌 협력 모색



① SKT ‘점프 버추얼 밋업’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초 메타버시 입학식 첫 선.
 ② kt 위즈 메타버스를 활용한 라이브 팬미팅
 ③ LG유플러스 ‘엑소(EXO)’의 온라인 전시관 ‘XR Gallery’ 공개 /각사

래티지에널리틱스(SA)에 따르면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460억 달러(약 52조원)에서 2025년까지 2800억달러(약 316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탈통신’ 기업으로 전환을 위해 혼합현실 사업 강화에 힘쓴 SKT는 기존 혼합현실 사업을 담당하는 MR서비스CO의 조직 명칭을 메타버스CO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메타버스 산업 선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KT 관계자는 조직명 변경에 대해 “MZ세대를 중심으로 게임·소셜·엔터테인먼트 등 개인의 일상과 밀접한 영역들이 메타버스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SKT가 보유한AR·VR 등 혼합현실 기술을 비롯해 5G,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본격 메타버스 시장 선점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이달 중 메타버스 신규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더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KT는 또 11월 인적분할을 통해 ‘AI·디지털인프라컴퍼니’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AI 기반으로 메타버스 등 신규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코스피 증가기준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00포인트(0.36%)오른 3305.21로 마감해 증가기준 최고치를 경신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2.37포인트(0.23%)하락한 1044.96, 원·달러 환율은 2.10원 내린 1129.70원에 마감했다. /뉴스

당일배송서 가격비교까지 온라인 명품 플랫폼 ‘혁신’

발란, 동일상품 최저가 비교서비스 무신사 부티크, 일부지역 새벽 배송

명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영향으로 명품 구매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등과 함께 3대 쇼핑 기간에 속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명품 플랫폼들은 최저가 비교부터 당일배송, 다품종 취급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변화를 빠르게 추구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발란몰 내 동일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최저가 비교서비스를 시작했다.

최저가 비교서비스는 발란에 입점한 800여 개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동일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여주는 것으로, 최저가 비교가 가능한 상품은 발란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 2만여 개 수준이다.

발란은 “그동안 해외 부티크와 제휴해 다양한 종류의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왔다”며 “향후 최저가 비교 가능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란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급처를 정품에 대한 인증을 검증한 국내병행파트너사와 편집샵 등으로 확대했으며, 이 파트너사는 820개로 상품 수도 110만개에 이른다.

부티크 네트워크를 이용, 상품판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만든 발란은 파트너의 보유 재고를 활용한 최저가 비교 서비스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국내 온라인 명품 소비 고객이 더 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여러 해외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선보이고, 명품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명품 플랫폼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무신사의 명품 편집숍 무신사 부티크는 최근 소비자 이용 편의를 높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3면에 계속>

/원미 기자 silverbeauty@

증시 활황에 ‘빚투’ 24조 사상 최대

신용거래용자 반년만에 5조 ↑ 코스피 13.4조, 코스닥 10.8조

코스피지수가 3300선을 넘어서는 등 증시 활황이 이어지자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24조 3022억원이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올해 초 19조원대를 기록하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반년 새 5조원가량 늘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란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잔고는 주식투자 열풍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말 6조원대에서 12월을 기점으로 18조원을 넘겼다. 특히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주식 시장이 오르면서 같이 늘

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국내 증시 활황에 추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며 빚투 규모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선진국 경제 정상화 소식 등에 힘입어 대형주 중심의 완만한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10조원을 넘겼다. 지난 2일 기준 코스피시장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3조4508억원, 코스닥은 10조8513억원이다. 코스피지수 상승세가 더 가파른 만큼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를 통한 신용거래용자이자율은 6~8%대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이자 폭탄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반대매

매 위험도 존재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의 신용거래용자 이자율(대출 기간 8~15일 기준)은 ▲키움증권 8.5% ▲하나금융투자 7.5% ▲한국투자증권 7.4% ▲삼성증권 7.0% ▲메리츠증권 6.6% ▲KB증권 6.5% ▲신한금융투자 6.5% ▲대신증권 6.0% ▲미래에셋증권 6.0% ▲NH투자증권 5.9%다. 국내 4대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평균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인 3.23%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또 반대매매 위험도 존재한다. 반대매매란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으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강제로 매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사는 상환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서울 신규확진 320명... 직장·학교·실내시설서 집단감염 /사진 뉴시스
- ▲ 정부 “수도권 지자체간 거리두기 이견... 내일 확정해 발표”

- ▲ 대체공휴일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4일 더 쉰다
- ▲ ‘코로나 억제’ 허위·과대광고 남양유업, 과징금 8억2860억원



- ▲ 바이오시밀러가 ‘효자’...일본·동남아 넘어 중동 시장 공략
- ▲ 흥남기 “델타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검토” /사진 뉴시스